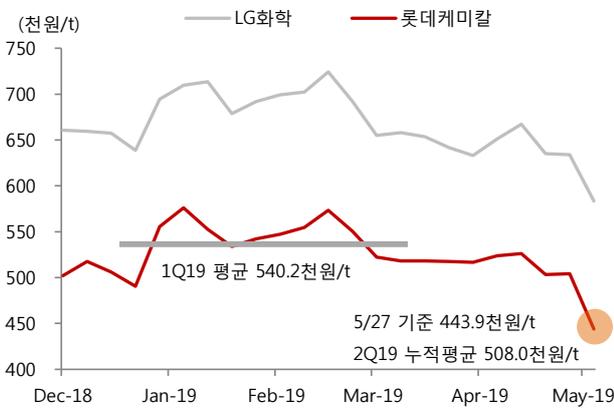


## 2분기 정유/화학 실적 또 우려

▶ 최근 시황악화, 유가하락 등으로 2분기 실적 부담감 높아지는 상황임. 1분기보다 잘 나오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여전히 높음. 연간 컨센서스는 롯데 1.5조원 / SK이노 2.1조원에 이룸. 실적부담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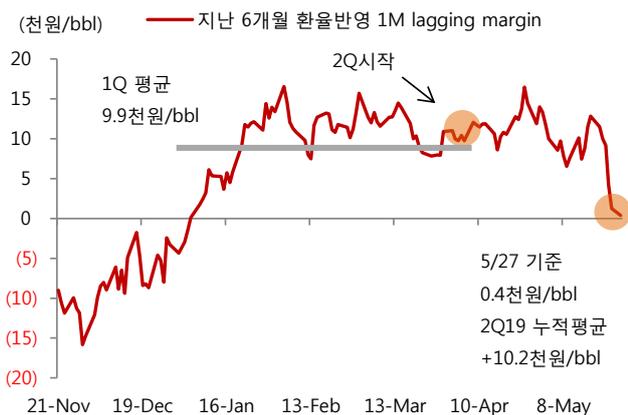
### 화학의 실적은 최근 약세로 2분기 우려 커지는 상황



자료 : Ciscem, Platts, Bloomberg, SK증권

- 화학의 좋지 못한 시황은 2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사실상 5월에 마무리 된 시점에서 화학의 1M lagging 환율반영 spread를 보니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네요
-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본다면 5/27 기준 443.9천원/t인데, 1Q19의 평균인 540.2천원/t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. 2분기 누적평균도 당연히 하락 중이구요
- 최근 PE/PP의 하락은 실적에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죠. 그 상황이 반영되는 듯 합니다
- 다만 현재까지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3,732억원으로 기록되어 1분기 2,957억원보다 높은 상황입니다. 참고로 2019년 연간 컨센서스는 여전히 1.5조원으로 높군요

### 정유 역시 화학과 마찬가지로 2분기 우려 커질 만한 상황



자료 : Petronet, SK증권

- 정유도 상황이 딱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. 원래 화학보다 견조한 이익이 기대되었지만 최근 유가급락과 함께 환율반영 1M lagging margin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
- 5/27 기준 0.4천원/bbl로서 1Q19평균의 9.9천원/bbl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네요. 최근 하락세를 반영한다면 아마 2분기 평균치도 화학과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구요
- 6월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유가하락과 환율의 동반 하락(원화강세)가 나타나기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
- 그럼에도 2Q19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,700억원으로 1Q19의 3,311억원보다 크게 잡혀있고, 2019년 연간 컨센서스는 무려 2.1조원으로 롯데케미칼보다 크게 높습니다
- 많이 하락한 주가에도 매수가 부담이 된다면 아마도 여전히 약세인 실적과 높은 컨센서스가 아닐까 싶네요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